

규제 미비에 느슨한 안전의식...사람잡는 전동킥보드

통근버스 충돌·대리 운전기사·대학생 등 광주서 잇단 사망사고 광주·전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부상자 수 매년 크게 늘어나 당국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 되풀이...안전위반 적발 건수 급증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한대에 같이 탄 20대 2명이 통근버스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느슨한 안전의식 뿐 아니라 광주시 등의 미비한 규제 등이 겹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산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20)·B(19)씨가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21일 오전께 숨졌고 B씨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B씨는 두 사람이 한 PM에 올라타는 등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고,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명 모두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 7일 밤 11시 30분께에는 광주시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고 위 도로 2차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60대 남성 C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승용고 위에 넘어졌다가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20대 대학생 D씨가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만에 사망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PM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PM이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뜻하며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광주의 연간 PM 사고 건수는 2019년 18건에서 2023년 111건으로 급증했으며, 전남에서는 2019년 8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PM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년 29명, 2020년 47명, 2021년 168명, 2022년 191명, 2023년 160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5년 동안 사망자도 총 4명 발생했다.

지난달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 시민 1만 33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32%)에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28.8%)를 꼽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PM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지만, 실효성



21일 광주시 광산구 봉암동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멧 착용 의무, 탑승인원 제한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문제들을 민간사업자에 일임하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M 교통안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M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

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법규 위반자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안전수칙 홍보 등 일회성이거나 캠페인성 활동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프랑스 파리에서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한 데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시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느슨한 규제 때문에 PM 사고는 물론 안전 의무

를 위반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PM 안전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한 결과 총 1만 7559건을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만 3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1149건, 음주운전 534건, 정원 초과 35건 등이었다.

현행법상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약물·과로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광주시의 PM 이용자 안전모 착용률은 23.64%에 불과했으며 인도침범 준수율도 22.7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PM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며, 정책적인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교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헬멧을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에게 헬멧을 일일이 소지하고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PM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장구를 보급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공사현장 하도급 노동자 상해, 도급 업체 80% 손해 책임

광주지법 6억4000만원 지급 판결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다쳤다면 도급 건설사에게 80%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A씨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A씨에게 6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롯데건설은 여수시 용천리제지산개발공사를 도급받아 B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

B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2020년 8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데크 제거와 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바닥 구멍에 빠져 3.3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목 척추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도급업체에 안전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A씨도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도급사인 롯데건설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폭행 수배자 시민 눈썰미로 18년만에 검거

2006년 목포서 범행후 도피 생활

18년전 목포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닌 지명수배자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목포경찰은 A(54)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께 목포시 주택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타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주하던 A씨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시민의 제보로 결국 경찰

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중요 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했지만, A씨가 잠적하면서 당시 수사가 중단됐다.

A씨는 공개수배 전에도 '신장 170cm,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라고 묘사된 특징을 알아본 익명의 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범행 18년여만에 붙잡혔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2028년)시점을 4년여 남기고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40대 노동자 화물사고 숨져

지게차서 쏟아진 원자재 맞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사고로 병원치료를 받다 숨졌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지에서 머리를 다친 A(45)씨가 21일 숨졌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 B씨가 A씨를 뒤늦게 발견

하고 급정거 했으나 지게차에 실려 있던 타이어 원자재(고무시트)가 A씨 위로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의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가 중대재해 발생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인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현장에 반사경이나 신호음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29일)과 미국 조지아공장(10일)에서 기계에 협착돼 노동자가 숨진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가 광주공장 정련공정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지게차(9대) 작업이 멈춰진 상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금품 받고 대출 해준 광주은행 직원 업무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금품을 받고 대출해 준 광주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2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업무 담당자 A씨가 14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대출을 해 준 정황을 적발했다.

광주은행 감사실은 A씨가 대출 조건에 부합하

지 않은 B씨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부정 대출한 금액은 9000만~1억원 규모로, 부당이득은 140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